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개원의와 봉직의를 위한 연수강좌

|일시| 2025년 5월 17일(토) 14:00-18:00

|장소|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대학본관 106호 강의실

초대의 글

존경하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동문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동문회장 최세환입니다.
개원의 및 봉직의를 위한 연수강좌에 귀한 분들을 모시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예년에는 스승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했으나, 올해는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부재라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수강좌는 교수님들의 진료 및 교육 지원, 그리고 개원의/봉직의 동문들의 최신 지견 공유를 위한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동문들과의 유대감을 돈독히 하고, 학문적 교류를 통해 함께 발전하는 기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5월 연수강좌에서 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동문회(聖神會)
제15대 동문회장 최 세 환

가톨릭의대 신경외과 동문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료, 의학, 의사, 의대, 의원 등등. 의원 의(醫)자가 붙은 모든 분야가 사회 전반에 걸쳐 초미의 화두가 된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치료해 주실 Next Generation 미래의 의료진이 이처럼 힘들고 암울한 현실에서 좌절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한없이 무겁고 아프게 합니다.

그렇기에, 금년 성신회 행사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일수록 “필수의료”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모든 성신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동문회의 결속을 다지고, 미래를 약속하는 모임과 성찰은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오며, 뜻깊은 시간에 그리운 성신 회원님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주임교수 성 재 훈

Program

14:00-14:20	등록
14:20-14:25	개회사
14:25-14:30	축사
14:30-16:00	Session I. 외래에서 놓치기 쉬운 통증의 원인들 좌장 : 서운요양병원 이강운, 심장병원 심정현
14:30-15:00	두통의 원인, 알고보니 경추문제 굿병원 이창익
15:00-15:30	팔저림의 원인은 가슴이었다. 흉곽출구 증후군 AK신경외과 박성만
15:30-16:00	허리 치료를 해도 왜 다리가 계속 저린가요?: 정맥! 그리고 동맥도 놓치지 말자!! 서울선정형외과 박광선
16:00-16:20	Break time
16:20-17:50	Session II. 미래를 준비하는 신경외과 좌장 : 센트럴병원 조경근, 수원월스기념병원 박춘근
16:20-16:50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성공적인 개원과 운영의 노하우 BNS신경외과의원 장상훈
16:50-17:20	노인과 통증환자에서 불면증의 평가 및 내성없는 치료 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태원
17:20-17:50	신경외과의사가 꼭 알아야할 퇴행성 뇌질환의 예방과 치료 서울성모신경외과의원 최세환
17:50-18:00	폐회사

사전등록 안내

등록비	무료
사전등록 기간	2025년 4월 8일(화) ~ 2025년 5월 10일(토)
문의처	가톨릭의대 신경외과 동문회 전화: 02-2030-4625 / 메일: marynsep@catholic.ac.kr
사전등록 LINK	https://naver.me/xyTVaha6



사전등록 신청서

이름	
구분	☐ 봉직의 ☐ 개원의 ☐ 군의관 ☐ 전공의
의사면허번호	
소속병원	
연락처(HP번호)	
E-mail	
저녁만찬 참석여부	

※ 위의 사전등록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동문회 이메일로 회신주셔도 됩니다.

사전등록 바로가기

찾아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대학본관



지하철 이용안내

- 7호선 고속터미널역(가톨릭의과대학 방면 / 3,4번 출구 / 도보 10분)
- 3호선 고속터미널역(가톨릭의과대학 방면 / 7호선 3,4번 출구 / 도보 10분)

주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주관: 대한신경외과학 연구재단